

충청남도 관광발전을 위한 제언

조 배 행

우송대학교 관광호텔외식경영학부 교수

I. 머리말

1990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관광개발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는 지방화의 정착을 위해 해당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지방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1992년 서해안권과 천안·공주를 중심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개발방향에 맞추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92~1996년), 전국 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등 국가적인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개발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짜임새 있는 관광기획과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 수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인 관광개발의 긍정적 효과만을 앞세운 개발이 진행되어 주민들의 생업의 타전이기도 한 지역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기존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의 관광개발 계획의 집행에서 수입창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고용 촉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창출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환경훼손, 관광수익의 특정집단 편중 등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관광개발정책은 지역의 경제적,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는 지역개발 차원의 정책 목표와 아울러 지역사회의 성장과 개발효과의 확산이라는 정책 과제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충청남도 관광개발 정책을 새롭게 재검토해봄으로써 바람직한 관광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충남 관광개발 정책의 재검토

충청남도의 관광개발계획은 1993년 공주·부여권 관광개발기본계획·태안해안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1997년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위탁자원의 개발이라는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2001년을 목표로 온천휴양권, 해양리조트권, 북부해안권, 남부해안권, 백제문화권, 대전 근교권 등 6개 관광권역이 설정되어 각 권역별로 세부적인 개발 방향과 전략들이 수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8년부터 공주와 부여지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개발과 함께 국제적 수준의 종합해안형 관광단지인 안면도 국제관광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1년에는 ‘언제나 찾고 싶은 관광 충남’이라는 추진 전략을 통하여 충청남도 관광개발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는 밑그림이 되는 충남 2010 정책비전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은 1997년 21세기 장기 발전 계획 당시 관광권역을 설정하여 전략을 수립한 것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2002년 4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

하여 국제적 수준의 중합해안형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 박람회장과 주변지역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대안모색이 진행 중에 있다.

아쉬운 점은 1997년 장기발전계획의 경우 충남지역내의 관광개발에 대한 접근방식이 과도한 자원의존과 경제적인 효과에만 치우친 전통적인 하드웨어 위주의 관광개발 형태만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흥자원을 활용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과, 청소년, 노년층 및 가족단위 등과 같은 표적시장별 시장요구를 반영한 관광지 개발이 미진하고, 계획추진이 다소 소극적이며 일관된 개발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다.

충남 2010 정책비전의 경우도 관광지 개발, 자원개발, 상품개발, 관광지 육성과 같은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정책수립 위주로 전개되어 핵심 관광상품 개발과 같은 마케팅 관점에서 충남관광발전에 대한 전략수립과 특정시장을 세분화하는 노력이나 충남관광에 대한 포지셔닝 확립문제 등 적극적인 마케팅 사고가 부족하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계획 수립과 지역주민을 고려한 관광개발 계획 수립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III. 충청남도 관광개발 정책의 방향성

충청남도의 관광개발은 약 10년여에 걸쳐 관광지 개발 및 조성, 도에 분산되어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 수많은 계획들이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독특한 상품과 편리한 시설들이 바탕이 되어 관광객을 고려하되 환경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작은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관광개발이어야 한다.

관광현상은 관광객과 관광자원을 연결해주는 관광매개물, 즉 교통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및 안내시스템 등의 발달로 더욱 활발해진다. 관광매개물은 관광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충남관광개발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나 관광자원의 개발에만 집중되어, 잘 개발된 관광지를 활성화시켜줄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 즉 관광안내소, 안내 팸플렛, 교통표지판, 관광자원이나 시설 안내판, 관광·교통지도, 화장실, 주차시설,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001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국민여행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관광여행시 불편사항으로 교통불편, 화장실 불결, 화장실 부족 및 안내판의 부족과 잘못 표시된 안내판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이 중 화장실을 포함한 위생시설과 안내판 교정·설치, 관광안내소 설치 등과 같은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망되었는데, 특히 대다수의 관광객이 '시설부족'과 '불결'을 지적하였다.

충남관광객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관광지내 화장실 불편과 관광안내소 부족, 안내판시설의 노후 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적인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지 지정이 아닌 관광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 즉 관광지 안내체계, 교통체계의 편리성,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완비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이런 것들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속성에 중점을 두는 관광개발이어야 한다.

관광은 시대적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변화에 의해 지속적인 부침을 거듭해 오고 있다. 국내의 경우 70~80년대의 경제의 급성장에 의한 여건변화로 국내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으며,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상승되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의 수요도 급증하였다.

2002년 한해동안 한·일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인 이벤트의 개최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민의 여가시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02년 4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충청남도 관광 홍보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여건조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광산업에서의 중요한 과제는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축제나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충남의 금산 인삼축제가 이천의 도자기 축제에 이어 제2위의 인지도를 보였고, 보령 머드축제의 경우는 양양의 송이축제에 이어 체험성에서 제2위를 나타내었으나 외래관광객의 선호도에서는 다른 경쟁 축제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금산 인삼축제나 보령 머드축제와 같은 충남의 대표적인 축제들을 계속 새롭게 보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대외에 홍보하여 이들 축제의 세계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3. 시장요구에 부응한 관광상품 개발이어야 한다.

관광상품은 유형의 상품과는 달리 구매 전 확인이나 표본을 가지고 구매자의 반응을 살펴본 후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국제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세분화된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시장과 잠재시장의 욕구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건강과 관련된 관광상품이나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이 주요한 시장의 요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 관광상품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체험관광의 추세에 맞추어 농어촌체험, 역사·문화체험, 생태체험관광 등 충청남도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특유의 관광상품 개발이 요망된다. 특히 충남의 경우 서해안과 금강 수변을 활용한 생태관광이나 온양, 도고 등의 온천자원을 건강 보양관광과 연결시키는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외래관광객 시장 유치 차원에서 볼 때 다음 세기 최대의 국제관광시장을 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관광객 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요망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서 중국인의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이나 시설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특히 충남에서 체재기간을 늘릴 수 있는 관광상품이나 코스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이어야 한다.

‘굴뚝없는 산업’으로 불리던 관광산업은 지난 수세기 동안 무계획적으로 많은 난개발이 이

루어지면서 점차 관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증가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한 관광개발로 인하여 등한시하였던 환경의 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으며, 일부 환경단체들에 의해서 더 이상 관광개발이 무공해 산업이 아닌 것으로 주장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 이후 관광개발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의 신개념인 지속 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개념이 대두되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이란 관광자원의 적극적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보호와 자연보전을 고려한 적절한 개발과 활용으로 관광자원 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현 시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관광개발을 진행하면서 다음 세대도 계속 지금의 상태를 향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충청남도 관광개발 정책의 경우도 더 이상 무분별한 하드웨어 위주의 대형 관광개발은 지양하고 소규모의 소프트웨어 위주의 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탐조체험, 갯벌체험 등의 생태관광 상품개발이 전형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충남 관광객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방문객들은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예를 들면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등의 갯벌과 사구, 철새도래지 등을 환경생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천, 공주, 부여, 논산, 강경 등을 중심으로 철새, 민물고기, 수중식물, 습지식물 등을 자원으로 한 금강 생태체험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관광개발이어야 한다.

지역 관광개발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관광자원 등을 관광개발을 통하여 재구성하고 정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관광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관광개발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광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역내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잘못되었을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 외부투자자 또는 개발자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광개발이 진행될 때 적극적인 주민협력이 필수적이다. 주민참여가 배제되고 외부자본에 의존한 관광개발의 경우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부의 상업적 요인에 의해 지역사회의 삶의 공간마저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광개발로 인한 토지 자원의 변화에 의해 주민의 자원에 대한 이용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은 관광개발의 선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안면도 관광개발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관광개발정책들은 지역주민을 고려한 초기의 계획과는 달리 관광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관광객 또는 사업자, 개발자의 입장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시 관광개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개발자와 지역주민간의 마찰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관광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관광개발의 순조로운 진행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관광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정책수립자들은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만 관광개발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농촌체험, 어촌체험, 산촌체험 등의 관광상품개발에 있어서 과거 우

리나라 관광농원 개발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충청남도 관광개발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충남관광개발정책 방향이 대규모의 하드웨어 또는 물량위주의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되었다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제는 투자비가 적게 들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관광개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관광객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만족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불편한 점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방문객 의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문객조사는 관광선진국들이 시행하는 것처럼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분리하여 방문전·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문객조사 결과분석을 통해서 목표시장의 관광객들이 ‘언제나 찾고 싶은 관광충남’에서 바라는 관광상품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 시장에 대해서 충남관광을 어떻게 포지셔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실행전략의 밑그림이 나올 것이다.

한편 지속 가능한 충남관광 개발이 되기 위해서 자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개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언제나 찾고 싶은 관광충남’ 전략추진은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